◉ 濟州島硏究, 제 3집, 1986. ◉

耽羅 部族國家의 成立

朴 用 厚*

Ⅰ. 머 리 말

濟州島에 人類가 棲息하기 시작한 것은 아득한 옛날 일이다. 於音里 빌레못洞窟의 遺蹟·遺物은 7,8萬年 前 舊石器時代에 人類가 棲息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그 時代의 사람은 어떤 種族이며 三韓 땅에 살고 있던 種族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다만 三姓 開闢 後 濟州島에 살고 있던 사람은 어떤 種族이며 그들과 三姓人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봄과 同時에 그들이 氏族社會를 거쳐 部族社會로 發展한 過程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濟州島에 관해서는 옛 文獻이 없는 不毛地라고 할 수 있다. 斷片的이나마 中國 文獻을 通하여 약간의 片鱗을 보게 되지마는 그것도 1,700餘年을 넘지 못하며 內容도 住民生活의 極小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이웃 日本의 文獻도 마찬가지로서 三國時代來을 넘지 못하고 高麗史에는 古記를 引用한 三姓 開闢에 관한 記錄이 있으나 古記의 正體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濟州島 先史時代의 究明은 遺蹟·遺物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이런 觀點에서 생각하려는 것이며 三姓 開闢을 境界로 하여 그 以前 氏族社會와 以後 氏族社會로 區分하여 여기서는 後者에 對하여 考察하려고 한다.

* 제주도사 연구가

Ⅱ. 漢拏山 爆發과 三姓 開闢

火山 噴出物, 遺蹟·遺物과 文獻을 通하여 濟州島에는 큰 火山 爆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擇里誌에 依하면 「漢明帝永平八年乙丑 紫氣浮於南溟 三姓之出 疑其時歟……」(漢明帝 永平 8年 乙丑(西紀 65)에 붉은 기운이 南海 上에 떴으니 三姓의 出現이 그 때가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 南海上에 뜬 붉은 기운은 漢拏山 爆發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1世紀 中葉이라는 것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다음 瀛洲誌에서는 「碧浪國使者曰 吾王登紫霄門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葱鬱 中有絕岳 湧出三神人……碧浪國 使者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께서 紫霄門에 올라 西海上의 大氣를 바라보니, 붉은 기운이 하늘에 이었으며 瑞色이 자옥하였는데 그 속에 陸地에서 멀리 떨어진 山이 있어서 세 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셨읍니다」고 하였다. 이 두 文獻에서 말하는 紫氣는 같은 뜻을 가진 것이고 또 그 時期는 三姓 出現 時期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記錄이 一致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三姓 開闢 年代를 考察하기 위하여 重要한 資料가 있으니 그것은 곧 漢拏山 爆發年代를 말하여 주는 遺蹟의 發見이다. 西紀 1928年 8月末 濟州市 山地港 築港 工事 中에 山地 採石場 石山 속에서 熔岩으로 密閉된 洞窟이 發見되고 洞窟 속에서 前漢의 五銖錢·古鏡 및 王莽(新) 때의 銅製 貨幣인 貨布, 貨泉과 石鏃, 土器가 出土되었는데(朝鮮資料) 王莽(西紀 9~19年)의 貨幣는 新의 亡後 東漢 光武帝(25~57)가 廢止하였으므로 貨布·貨泉의 使用 期間은 西紀 14~24年 사이이다. 이 遺物에 依하여 漢拏山 爆發과 熔岩 噴出이 西紀 14年 以前임을 알 수 있다. 鄭以吾의 星主高氏家傳(世宗32)은 三姓人의 出現이 九韓 때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文獻記錄과 遺蹟을 通하여 생각할 때 三姓 開闢은 漢拏山 爆發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三姓 開闢 年代의 考察

擇里誌의 南溟紫氣 年代는 西紀 65年이고 王莽 貨幣의 使用 年代는 西紀 14~25年인데 이 貨幣는 樂浪의 漢商人이나 韓人을 通하여 州胡人의 손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山地洞窟의 遺物은 漢拏山 爆發 以前 社會人의 所持物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遺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火山 爆發 때 희생된 것이다. 이 洞窟로 미루어 생각할 때 全島를 뒤덮었던 大爆發이 있었음을 알게 되며 全島의 動物과 사람이 살아 남고 있었던 것은 三姓人을 보아 알 수 있다. 그것은 三姓人과 같이 窟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生存이 可能하였던 것이다. 三姓說話가 말하는 바와같이 「厥初無人物… 처음 人物이 없었던」 狀態에서 三姓人이 살아 남아 濟州島 開闢의 主人公이 되었음을 三姓說話는 말하고 있다.

三姓人이 出現한 때는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王莽 貨幣가 使用되었던 西紀 65年까지의 사이로 推測된다. 곧 1世紀 中葉이라고 할 수 있다. 高氏族譜에서는 三乙那 出現은 漢宣帝五鳳 2年(西紀前 56年)이라고 하였는데 約 1世紀의 差가 되는 셈이다. 이것은 濟州島 先史時代의 일인만큼 正確한 年代를 알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그것은 推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Ⅳ. 漢拏山 爆發 後의 氏族社會의 發展

三姓人은 어떤 種族에 屬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려면 먼저 漢拏山 爆發 以前의 氏族社會人에 對하여 一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文獻이 不足한 우리나라에서는 濟州島 先史時代에 對한 것은 中國 文獻에서 겨우 片鱗이나마 보는 수 밖에 없다. 後漢書에 依하면 「馬韓之西南海島上 有州胡國 其人短小 剃頭衣韋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馬韓의 西南 海島 위에 州胡國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몸이 短小하고 머리를 깎고 가죽옷을 입었는데 上衣는 있고 下衣는 없으며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고 배를 타서 往

來하면서 韓中에 交易을 한다」고 하였으며 新唐書에서는 「高宗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 遣使來朝 貢方物(中略)夏居草屋 多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把土……高宗 龍朔 初에 儋羅王 儒李都羅가 使者를 보내고 來朝하여 方物을 바치고 (中略) 여름에는 草屋에 살고 겨울에는 窟室에 살며 땅에서는 五穀이 生産되나 耕作에 소 부릴 줄을 모르고 쇠스랑으로 흙을 긁는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先民들의 習俗의 一端을 文獻을 通하여 보았지만 州胡人의 特徵으로 몸의 短小, 옷의 有上無下, 髡頭를 말하고 있는데 몸의 短小는 몸이 長大한 漢人의 눈에 유다르게 보인 것으로 短小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므로 이것만으로써 種族의 如何를 決定하기가 어려우며 옷의 有上無下는 生産이나 海上 活動에 從事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간편한 服裝이 要求되기 때문에 짧은 잠방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끝으로 가장 뚜렷한 것은 髡頭인데 이것은 扶餘族 韓族의 一般的인 習俗이 아니라 奴隷나 外部로부터의 侵入者에 對해서 머리를 깎는 習俗이 있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種族을 決定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일 髡頭人이 南方의 海岸島嶼族이나 日本의 九州에 살았다는 고루보구人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州胡人 全部가 아니었음은 全島에 散在한 先民의 遺蹟 遺物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髡頭人은 州胡人의 一部로서 氏族社會의 主流를 이루었던 優勢한 種族의 文化에 同化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髡頭人의 遺物이라고 認定할 만한 것이 發見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漢拏山 爆發 以前 氏族社會의 主流를 이루었던 사람은 어떤 種族이었는가를 考察하기 위하여 先民들의 遺蹟·遺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住居址……於音里 빌레못洞窟·濟州市 三姓穴·山地洞窟(破壞)翰林邑 金陵里 한드르窟·大靜邑 上摹里 山伊水洞·西歸浦市 西烘里

○고인돌(支石墓)……濟州市 28基(龍潭二洞 吾羅一洞 外都上洞 三陽二洞)·涯月邑 23基(光令里 下貴里)·大靜邑 37基(下摹里 日果一里 二里 加波島)·安德面 1基(大坪里)·西歸浦市 1基(穩連里)·南元里 1基(新禮二里)·城山邑 2基(新山里 新川里) 計 99基 甕棺墓……濟州市 龍潭洞

○貝塚……濟州市 龍潭洞(鄕校 北田)·涯月邑 郭支里 海岸·朝天邑 北村里·舊左

邑 西金寧里 南屹洞

○土器……無紋厚肉土器一濟州市 龍潭二洞 支石墓・漢川邊・一徒一洞 宅地・涯月邑 郭支里 貝塚・翰林邑 金陵里 한드르窟・城山邑 溫坪里 황누앞 海岸

櫛文厚肉土器一朝天邑 北村里 住居址

孔列土器一大靜邑 上摹里 山伊水洞

○石器……磨製石刀一濟州市 龍潭二洞 支石墓・一徒洞・大靜邑 加波島

磨製石斧一濟州市 山地洞窟・翰林邑 金陵里 한드르窟・大靜邑 武陵二里 坐起洞・西歸浦 東 자구리・城山邑 溫坪里 海岸

○骨角器……涯月邑 郭支里 貝塚(骨針 骨鏃)・朝天邑 北村里 住居址(骨器)

○貝類……朝天邑 北村里 住居址・大靜邑 加波島

○木炭・骨炭……翰林邑 金陵里 한드르窟

○선돌(立石)……翰林邑 大林里(立石里)

○習俗……射矢(射矢卜地 射石試力)・샤마니즘・할망堂

○言語……퉁구스語

遺蹟 分布 狀況을 보면 濟州市를 中心으로 하는 地區와 大靜邑 海岸地區에 密集되어 있고 大靜地區의 加波島에 고인돌이 集中하여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加波島는 松岳山 밑 대난굴에서 2킬로미터 未滿의 距離에 位置하여 中間 海峽에는 隆起線이 다리 모양으로 되어있고 水深은 干潮 때 9미터 밖에 안 되며 松岳山은 여러번 爆發한 일이 있으므로 火山活動과 地殼運動으로 말미암아 中間에 海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이 地域은 山과 바다가 共存할 뿐 아니라 겨울에 따뜻하며 먹을 것도 얻기 쉬웠기 때문에 生活 根據地가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여기에 列擧한 遺蹟 遺物 習俗 言語 等에 對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住居址 三姓穴은 圓形 竪穴인데 扶餘族의 움집과 같은 것으로서 上部 構造는 없어졌은나 몽촌 움집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晋書의 肅愼 記錄에 「夏則草屋 冬則穴處…여름에는 草屋에 살고 겨울에는 穴居한다」고 하였고 新唐書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고인돌은 濟州島 特有의 形式도 있지마는 南方式이 많고 甕棺墓는 百濟와 共通하며 土器는 無紋厚肉・櫛文・孔列等 各種이 있어 扶餘族과 같다. 石器는 그 材料가 花崗石 또는 硅岩片石으로서 內陸產임을 알 수 있다. 弓矢 使用은 東夷族의 特長인데 瀛洲誌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三姓人은 射矢로써 住居地를 定하고 部族社會의 領導權을 掌握하기 위한 競爭에서도 射石을 함으로써 勇力을 겨루었다.

三神崇拜와 함께 샤마니즘은 島民의 精神에 뿌리 박혀 있어서 部落마다 할망堂·本鄕堂이 있다. 코시(告祀) 農醵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扶餘族 韓族의 十月祭天·五月祭天의 遺俗이다. 言語에는 압바르〈압바ᄅᆞ(南海)·압내(南水閣川)·뒷개(北村〈北浦)·별도〈별뒤〈별뒤(禾北洞)와 같이 南을 "압" 北을 "뒤"라고 하는 퉁구스系 말이 있으며 地名 일내(一徒)·이내(二徒)·삼내(三徒)의 "내"(徒)는 鄕歌 風謠 중의 "의내여"(矣徒良)와 魏志 東夷傳의 「相呼皆爲徒……서로 부를 때 다 '내'라고 한다」의 "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辰韓語 "내(徒, 徒衆)인 것이다. 물음의 感動詞 "양(예)"은 濟州島와 慶南의 南海岸·東海岸의 蔚珍에만 있다.

이와 같이 濟州島의 遺蹟·遺物·言語·風俗은 扶餘族·韓族 文化의 影響이 크며 濟州島 先民들은 新石器時代로부터 鐵器時代 初에 韓半島의 南部를 거쳐 流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髡頭가 아니라 상투 辮髮이었음은 勿論이다. 髡頭人과 접촉한 漢人들은 州胡人은 다 髡頭인 것 같이 傳하고 있으나 各種 遺蹟·遺物·言語·習俗 等을 볼 때 州胡人은 髡頭人 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髡頭人이 만일 南方 島嶼 或은 日本 九州를 거쳐 流入하였더라도 그들은 扶餘族 韓族의 優秀한 文化에 吸收 同化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漢拏山 爆發로 因하여 全滅되고 扶餘族 韓族의 生存者가 前社會를 繼承하여 새로운 氏族社會를 이루고 氏族部落을 形成하면서 全島 各處의 縣村으로 發展하였다.

瀛洲誌에 依하면 三姓人은 射矢 卜地하여 所居地를 定하였는데 高氏 所居地는 第一都이니 濟州 一徒요 良氏 所居地는 第二都이니 大靜 山方里요 夫氏 所居地는 第三都이니 旌義 土山里라고 하였다. 大靜 山房山 附近에는 古墳群이 있고 旌義 兎山里 附近에는 "營집터"라는 遺蹟이 있어 옛날 住居의 中心地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瀛洲誌의 記錄이 根據 없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世宗實錄에는 良乙那 所居地가 第一徒로 되어있다.

Ⅴ. 部族國家의 胎動

三姓을 主軸으로 氏族社會가 發展하여 大氏族社會를 이루어 갔는데 濟州島의 周邊 情勢는 北方에 三國이 鼎立하여 征服戰이 계속되고 東으로 倭가 出沒하여 不安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防衛의 必要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를하여 氏族聯合이 不可避하게 되었으나 聯合體의 領導權 掌握을 위하여 陣痛을 겪게 되었으니 瀛洲誌에서는 實力 對決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高乙那 15世 孫 高厚·高淸·季 3兄弟는 新羅에 入朝하였으니 領導權을 위한 地盤 構築이 目的의 하나였을 것이다. 高厚 等이 新羅에서 돌어올 때 高氏 一族이 健入浦에서 歡迎하였으니 아직 高氏의 領導權이 確立되지 아니한 때였다. 高厚 等은 新羅에서 돌아온 뒤 다른 氏族들의 協調를 얻기 위하여 新羅로부터 받은 王子·徒上의 爵을 良·夫 두 氏族에게 分讓하였다. 高麗史에서는 十五代孫 高厚高淸昆弟三人 造舟渡海于耽津 盖新羅盛時也(中略)自此子孫蕃盛敬事國家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15代 孫 高淸 兄弟 3人이 배를 지어 耽津으로 건너갔으니 대개 新羅의 盛時이다. (中略) 이로부터 子孫이 번성하여 國家를 敬事하였으며 高로 星主를 삼고 良은 王子가 되고 夫는 徒上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는 4世紀 末로부터 訥祇王 때까지의 사이 곧 5世紀 中葉까지로 짐작된다. 그것은 漢拏山 爆發 時期와 高厚 等이 高乙那의 15世 孫이라는 瀛洲誌의 記錄 等으로 推考하여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이다. 李膺鎬의 乇羅國書에서는 訥祇王 8年 甲子를 耽羅國 紀元元年으로 하고 그 理由는 말하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高厚의 新羅 入朝 時期를 起點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은 部族國家의 成立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Ⅵ. 部族國家의 成立

全島에 걸쳐 氏族社會를 이루어 살던 各 氏族은 聯合하여 部族社會를 이루고 처음 領導權은 良氏에 있었으나, 그뒤 세력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領導權 掌握을 위하여 陣痛을 겪은 뒤에 드디어 實力에 있어서 優勢한 쪽이 勝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對하여 瀛洲誌는 다음과 같이 表現하였다. 「自玆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種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境 盖九百年之後 三人各自射石 以試勇力 高爲上 (中略) 故民心並 歸于高氏 以高爲君長 以良爲臣 以夫爲民 而國號乇牟…이로부터 뒤에 비로소 產業을 이루어 五穀씨를 심고 또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날로 富하여서 드디어 人間 세상이 되었으며 대개 900年 뒤에 3人은 各各 돌을 쏘아 勇力을 겨루었는데 高가 上이 되고 良은 中이 되고 夫는 下가 되었으므로 (中略) 民心이 다 高氏에게 돌아가서 高로 君長을 삼고 良은 臣이 되고 夫는 백성이 되었으며 國號를 乇牟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實力으로써 領導權을 掌握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英祖實錄에서는 「濟州儒生高漢俊等 上疏言 耽羅即古乇羅國也 邃古三神人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 鼎立九百年 人心歸于一 高氏爲主…濟州 儒生 高漢俊 等이 上疏하여 이르되 耽羅는 곧 옛날의 乇羅國입니다. 아득한 옛날 3神人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가 鼎立한 지 900年 만에 人心이 하나로 돌아가서 高氏가 國主가 되었읍니다」고 하였다. 3氏族은 弓術에 長한 部族이었으므로 射矢로써 實力을 겨루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濟州市 禾北洞 三射石이라고 傳하고 있으니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같다.

이와 같이 瀛洲誌는 部族國家가 成立된 것은 三姓 開闢 後 900年이라고 하고 있다. 또 瀛洲誌는 高厚가 新羅에 入朝한 때에는 아직 國主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은 高厚에 對해서는 主라는 말을 쓰지 않다가 高厚의 12世 孫 高聃에 이르러 비로소 耽羅王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면 部族國家가 完成되어 國主의 地位가 確立된 것은 언제인가고 하는 것에 對해서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대개 高厚 以後 高聃에 이르는 사이 곧 5世紀 初로부터 7世紀 中葉까지라고 짐작된다. 瀛洲誌에서는 「新羅烈宗朝 耽羅王高聃 遣賡巡使良宕按撫使夫繼良入朝于新羅… 新羅 烈宗朝에 耽羅王 高聃이 賡巡使 良宕과 按撫使夫繼良을 보내어 新羅에 入朝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武烈王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된다.

Ⅶ. 맺 음 말

이 글에서는 濟州島 原住民에 對하여 考察하려는 것이 아니라 濟州島를 開拓하여 온 現住民의 始祖들이 氏族社會에서 部族社會를 形成하면서 언제 部族國家 耽羅(섬모라)를 이룩하여 왔으며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考察하려는 것이었으나 文獻이 不足한 濟州島 先史時代를 究明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 遺蹟·遺物이 發見되어 그것들을 土臺로 하고 言語·習俗 等 옛 文化까지를 살펴봄과 同時에 一部 文獻과 對照하면서 考察하였으나 아득한 옛날 일인만큼 正確한 究明이 어려워 隔靴搔痒의 感이 없지 않다. 앞으로 더 많은 資料가 發掘되어 考古學的 檢討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